

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 발굴 추진

- 중장기전략위원회, 미래사회전략 분과회의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교육의 방향성과 그 역할에 대해 논의

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'26.3.5.(목),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. 금번 회의는 '26.3.4.(수)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후 연달아 개최된 첫 번째 분과회의로 어제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.

【 중장기전략위원회 개요 】

- (개요)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로서, 2012년부터 운영중
- (구성) 제7기 위원은 권오현 위원장(前삼성전자 회장)과 분야별 전문가, 총 20명으로 구성
- (분과) ①혁신성장반(AI, 바이오, 문화 등 주요산업 및 경제 등), ②미래사회전략반(인구, 교육, 복지, 노동, 기후변화 대응 등), ③거버넌스개혁반(정부혁신, 규제개혁, 지역발전 등)
- (미래사회전략반)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(분과장),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, 김기선 충남대 법전문 교수,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,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, 지속가능대학원 교수,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총 6명

'26.3.4.(수) 개최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세대를 위한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하며,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표의식 공유가 있었다. 이와 관련해서 미래사회전략반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 교육의 방향성과 그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.

황준성 위원(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)은 **교육과정과 대학 입시 제도의 경직성**을 지적하였다. 교육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사교육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, **사교육이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** 한다고 언급하였다.

계봉오 위원(국민대 사회학 교수)는 급변하는 사회·경제 환경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, **정성평가의 효과적인 활용**을 제안하였다. 다만, 평가의 공정성·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**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**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.

인소영 위원(카이스트 지속가능대학원 교수)는 **대학 입시제도 및 평가제도**가 개선되어야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, **교수들의 사회적 신뢰성 회복**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.

권오현 위원장은 현재의 **대학 교육**이 시대 변화에 적합한지 점검하고, **교육 시스템**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회적 요구에 맞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**금일 논의내용의 핵심**이라고 밝혔다. **교육과 일자리 문제**는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**합리적인 제도 혁신과 사회적 신뢰 확보**가 우선되어야 하며, **점진적 접근**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
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**성장 잠재력 제고, 혁신과 신산업 육성, 청년 일자리 문제,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**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**분과 차원**에서 우선 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**사회적으로 중요**하면서 **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미래전략 과제**를 최종 선정하여 '26.4월부터 **과제연구**를 진행할 예정이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 | 책임자 | 과 장 | 곽상현 (044-214-161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효진 (hjkim1104@korea.kr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어우주 (hidwnr@korea.kr) |
| | 미래전략기획실 포용사회전략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혜림 (044-214-1710) |
| 담당자 | | 사무관 | 심지혜 (jihyesim@korea.kr) | |

